

살롬! 지나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왔습니다. 중보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의 동역함을 통해 조금이나마 차가운 겨울 크림반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러 - 우 사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게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지나긴 겨울의 시간이 지나고 따스한 햇볕이 이 땅에도 비취길 소망하며 손 모아 봅니다.

<크림 소식>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크림반도의 상황은 '평화롭다' 입니다. 마치 한국이 북한과 마찰은 있지만 사람들의 삶은 평화로운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곳에서 약 3~400km 떨어진 곳에서는 매일 무시무시한 전쟁의 연속이지만 이곳 크림반도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주변에 동료나 이웃들의 가족들이 징발되어 전선으로 보내졌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웃의 이웃의 아들이 전사자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징발병들은 전쟁 수행 능력이 부족해 최전선으로는 가지 않고 후방에서 지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이 늘 최전선을 향하진 않고 후방으로도 향하기에 인명피해가 생긴다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소식도 접합니다. 많은 장정들이 죽었고 희생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페로폴에서는 잠시 휴가를 나온 군인들, 군용 트럭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 한편이 아련해집니다. 현지의 많은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친인척들이 크림반도나 러시아로 피난해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형제가 러시아에 살면서 러시아편에 서있다고 관계를 단절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몇몇의 우크라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아버지께 손 모읍니다. 왜 형제의 나라라고 서로를 부르던 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서로의 가족, 형제 자매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아버지께서 하루속히 이 사태를 멈춰주시길, 더 이상의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길,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치유 되길 매일 손 모읍니다. 함께 손 모아주세요.



<사역 소식>

저희 가정의 사역들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러 - 우 사태 이후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크림반도로 왔습니다. 이 사람들 중 러시아에 시민권을 얻어 정착하는 분들도 있지만 러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정착하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러시아의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도 의료보험이 있고 러시아와 같이 무상치료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병원에는 거즈, 약, 주사바늘 등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본인이 구입해서 병원에 가지고 가야 합니다. 뒷돈을 주지 않으면 수술을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시민 혁명이 일어난 이유가 지나친 부패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러시아 영주권이

나 시민권을 취득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으로 몰려듭니다. 저희 병원에도 현재 10명의 환자 중 1~2명은 우크라이나 서류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치료를 받고 나가시면서 '당신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라고 늘 물어보십니다. (현지어로 сколько я должен вам?) 그러면 저는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것이 필요합니다. (Вы нечего не должны мне. Вы должны быть здоровыми.) 라고 말합니다. 마취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자기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하에 숨어서 몇일을 있다가 나와서 크림에 있는 친척들에게 피해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던 집이 폭격에 무너지고 가족들과 내려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러시아 영주권을 취득해 일하며 이곳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지켜 주셨습니다."라고 위로를 전할 때 그분들의 마음에 잠시나마 평안이 찾아 옴을 보게 됩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속으로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상처를 씻어주시고 덮어달라고, 더 큰 희망과 소망이신 주님을 보여달라고... 마찬가지로 독거노인들의 집으로 진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전할 때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의 작은 한마디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길 늘 기도합니다.

구제사역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학교, 병원을 통해 물품, 헌옷, 식료품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군인 병원에도 티셔츠, 바지, 양말부터 거즈, 소독약, 봉합 바늘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식료품 나눔도 진행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쓰레기통을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이는 대로 근처 슈퍼에서 빵, 치즈, 우유, 햄, 사과 등등 몇일 요기꺼리가 되도록 사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도 잊지 않습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빵(쿨리치)을 직접 만들어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에게



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함께 전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 학급에서 빵을 나누어 아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이 학급에서 빵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짧은 애니메이션도 틀어주셔서 의미를 잘 새기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공부방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업자를 내서 공부방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를 내려면 등록지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곳들은 작은 공간도 월세가 월 100만원이상 아주 비쌉니다. 사업자 신청에 필요한 주소지를 일반 주소지로도 가능하다고 하여 몇몇 장소를 알아보고 주인들과 이야기를 해봤지만 장소를 사업자 등록지로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주인에게도 물어봤지만 집 주소를 사업자 주소로 주기는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으로 일을 진행하기엔 앞으로의 사역에 문제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장소가 나오도록 손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소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은 심페로폴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 - 우 사태 속에서 스파이 퇴출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 크렘린궁을 향한 무인기 (드론)공격과 더불어 크림반도 의장을 향한 테러등 일련의 사태들에 더해 지속적으로 가짜 난민들이 유입되어 러시아 정부의 지원금을 우크라이나로 보낸다는 첩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외국인들에게 위협적입니다. 경찰들의 불시 검문, 검색이 있기도 하고 외국인 선교사들은 우선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교제하고 있던 선교사님 가정은 가정교회를 잠시 중단하셨습니다. 더불어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러시아 정부는 한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이 비우호국가로 가지 않길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미 비우호국가 국적자들의 러시아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한국 국적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가정이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손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이가 깨졌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 와서 X-ray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큰 손상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뛰어 놀다가 일어난 일이라 대견스러우면서도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주를 끝으로 예음이는 러시아 교육과정으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4년을 학교에 잘 적응하여 마치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학교는 같지만 중학생이 되면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잘 적응하도록,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버지의 지혜로 공부도 잘 할 수 있도록 손 모아주세요.



< 손 모을 제목 >

1.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러 - 우 사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2. 크림반도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 공공기관과 수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을 위해,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구재의 손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잘 전해져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3. 크림반도가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각 교회와 성도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4. 저희 가정이 한걸음 한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하도록.

5. 저희 가정의 비전, 앞으로의 길, 건강,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한국에 가족들의 구원과 건강, 물질의 축복을 위해.

저희 가정의 앞으로의 사역을 의료와 교육이란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과종합병원(유럽 시스템은 치과도 내과, 외과, 보철, 교정, 소아과로 세분화함)을, 나아가서는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현지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병원을 통해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 복음 속에서 교육하고 믿음의 인재, 제자를 키워내길 꿈꾸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도록, 경제적인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기도하며 찾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위한 장소, 공부방을 위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 카카오톡 아이디 : sunghoon985
- 크림반도 기독교병원 설립 후원금 : 하나은행 275-890890-97207 한성훈
- 군병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 물품지원 후원금 : 시티은행 605-09169-268-01 노경윤